

PA-37

밀 품종별 춘파재배 생육 및 수량성

조영민^{1*}, 허병수¹, 최규환¹, 김주¹
 Yeong Min Jo^{1*}, Byong Soo Heo¹, Kyu Hwan Choi¹, Ju Kim¹

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,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
¹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Services, Iksan, 54591, Korea

[서론]

최근 전라북도 서부 평야지를 중심으로 밀(*Triticum aestivum* L.)과 콩을 연계한 이모작 작부체계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10월 콩 수확기에 기상 및 노력사정으로 수확이 늦어, 저 밀을 가을에 파종하지 못하고 이듬해 춘파재배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은 파성이 II~III인 양질형으로 봄에 파종해도 출수가 가능하지만 성숙기가 늦어져 후작물 파종에 영향을 주고 추파대비 수량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육종된 국내 밀 우량품종의 춘파재배 생육 및 수량을 구명하여 밀 춘파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밀 ‘금강’, ‘새금강’, ‘고소’, ‘황금알’, ‘아리훅’ 5품종을 대상으로 2021~2022년에 수행하였다. 파종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내 시험포장에 휴폭 25cm, 파폭 5cm, 파종량 16kg·10a⁻¹로 2022년 2월 25일(추파: 2021년 11월 3일)에 휴립세조파하였다. 기상 및 토양 자료는 Data Logger(WatchDog 1000 Series_WaterScout SMEC 300 Soil & Solar Radiation sensor, Spectrum Technologies, USA)로 수집하였으며, 생육 및 수량 조사는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(RDA, 2012)에 준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재배기간 중 평균기온은 1월중순, 2월하순에 -2.5, 0.8°C로 평년대비 각각 -2.2, -2.6°C 낮았으며, 3월이후에는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. 강수량은 340.6mm로 평년대비 101.7mm 적었으며, 특히 5월에 5.3mm로 평년대비 74.9mm 적었다. 이에 따라 5월 포장 토양수분함량이 1.2%로 가물었다. 춘파재배에서 출수기와 성숙기는 ‘황금알’이 5/11, 6/13로 가장 빨랐으나, 추파대비 각각 18일, 14일 늦었다. 춘파재배에서 간장은 ‘아리훅’이 84.0cm로 가장 높았으며, 도복지수도 가장 높았다. 수장과 1수립수는 ‘고소’가 11.3cm, 41.3개로 가장 길고 많았다. m²수수는 ‘황금알’이 707개로 가장 많았으나, 추파대비 300개 적었다. 천립중은 ‘황금알’이 40.8g으로 가장 무거웠으나, 추파대비 6.1g 가벼웠다. 대체로 모든 품종에서 추파대비 춘파재배에서 수장, 1수립수는 증가하였으나, m²수수와 천립중은 감소하였다. 수량은 ‘황금알’이 340kg·10a⁻¹로 가장 많았으나, 추파대비 61%수준이었다. 따라서 밀 춘파재배시 ‘황금알’이 수확시기도 빠르고 수량도 많아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되나 추파대비 감수를 예상하여 파종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jomin0220@korea.kr Tel. +82-63-290-6033